영어의 능격성(Ergativity)

김 상 혁
(청주과학대)

Ⅰ. 서 론

영어는 주격/대격 언어에 속한다고 하지만 능격 동사가 있다는 것이 Halliday(1967)와 Lyons(1968) 등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고, Dixon (1994)은 이들의 연구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능격성(Ergativity)을 분석하고 있다.

먼저 능격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, 보편 문법에서는 주격/대격 언어뿐만 아니라, 능격/절대격 언어도 동시에 언어 자료로 분석하여야 하므로 능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.

(1) a. John opened the window.
b. The window opened.

주격/대격 언어인 영어에서도 (1)의 open과 같은 동사를 능격 동사라고 하고 (1a,b)의 관계를 Comrie(1978)는 어휘적 능격성(lexical ergativity)이라 했다.

본 논문에서는 첫째, 능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4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. 그렇게 함으로써 용어 사용의

혼란을 막고 능격/절대격 언어의 형태, 통사적 특징을 찾고자 한다. 둘째, 영어의 능격성은 어휘적 능격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격/대격 언어인 영어의 능격/절대격적 특징을 과연 잘 나타내는 것인지 영어, 한국어, 그리고 능격/절대격 언어와 비교하여 밝혀 보려 한다. 셋째, 능격/절대격 언어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통사적 능격성인데, 영어에서 이와 유사한 통사적 능격성의 구조를 보이는 구문을 찾아보려 한다.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영어는 어휘적 능격성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, 이것보다 훨씬 더 능격/절대격적인 특징을 보이는 통사적 능격성이 영어에도 나타남을 밝혀 보이려 한다.

Ⅱ. 능격에 대한 논의

언어를 격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주격/대격 언어와 능격/절대격 언어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. Chomsky의 생성 문법은 주격/대격 언어를 주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지구상의 언어에 약 1/4이 능격/절대격 언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편 문법(Universal Grammar)을 지향하는 점에서 다소 편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인간의 모든 언어를 동일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보편 문법에서 능격/절대격 언어 자료를 좀 더 많이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.

주격/대격 언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능격/절대격 언어 구조가 나타나고, 능격/절대격 언어에도 주격/대격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. (2)와 같은 Georgian의 Caucasian계 언어 중의 하나인 Kartvelian은 능격/절대격 언어이므로 능격/절대격 체계로 주로 나타나지만 시제의 차이에 따라서 주격/대격 체계와 능격/절대격 체계가 동시에 나타난다.

(2) a. *Student-i Çeri-s cers.* <현재 시제 : 주격/대격 체계>
student-***Nom*** letter-***Acc*** writes